

KIA, LG 상대로 싹쓸이 패배 면했다

LG와 3연전... 2연패 후 승리
크로우 난조 불구 재역전극
21승 9패... 승률 7할 유지
수비 실책·대체 선발 아쉬움



KIA타이거즈가 디펜딩 챔피언 LG트윈스와 주말 3연전을 루징 시리즈로 마쳤다. KIA

는 26일과 27일 경기에서 이틀 연속 역전패를 당했지만 28일 경기를 승리하면서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

KIA는 2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6차전에서 10-7로 재역전승을 거뒀다. 앞서 27일 5차전에서 3-6, 26일 4차전에서 6-7로 이틀 연속 재역전패를 당했던 KIA는 3연전을 모두 내주지 않은 것에 만족했다.

이번 3연전에서 스윙패를 면하면서 이범호 감독은 KIA 지휘봉을 잡은 후 30경기째 싹쓸이 패배가 없다. 또 올 시즌 21승 9패(승률 0.700)로 단독 선두를 수성함과 동시에 7할 승률을 지키는데도 성공했다.

자칫 팀 분위기가 침체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승리여서 더 뜻깊다. 앞선 두 경기의 내용이 모두 아쉬웠기에 시즌 첫 싹쓸이 패배이자 3연패에 빠진다면 KIA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었다.

26일 4차전에서 KIA는 수비의 아쉬움



KIA타이거즈 선수단이 2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트윈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6차전에서 10-7 재역전승을 거둔 뒤 기쁨을 나누고 있다.

이 낡은 스노우볼로 연승이 중단됐다. 선발 네일이 5-1로 앞선 5회말 선두타자 오지환을 상대로 좌중간에 뜬공을 유도했지만 좌익수 소크라테스와 중견수 최원준 모두 잡지 못하며 2루타가 됐다.

이어 박동원을 땅볼 처리한 뒤 신민재

를 상대로 루킹 삼진을 잡았지만 포수 김태군이 공을 제대로 잡지 못하며 낮아웃 상황이 됐으나 1루가 아닌 투수를 향해 송구하며 아웃 카운트가 올라가지 않았다.

이 실책이 네일이 결국 흔들렸고 흥창기에게 몸에 맞는 볼을 던지며 1사 만루에

몰린 뒤 박해민에 2타점 적시타, 문성주에 좌전 적시타를 허용하며 5-4까지 추격을 허용했다.

또 6회초 한 점을 추가하며 6-4로 격차를 벌린 뒤 6회말부터 전상현이 구원 등판을 했으나 1사 1-2루 위기를 맞은 뒤 신민재

의 안타에 중견수 최원준이 잡았던 공을 흘리며 실점까지 이어졌고, 2사 1-2루에서는 박해민의 우전안타에 1루 주자 신민재가 무리한 홈 쇄도를 감행했으나 포수 김태군이 제대로 태그하지 못해 6-7로 역전됐다.

27일 5차전에서는 대체 선발의 아쉬움이 진하게 남았다. 올 시즌 첫 대체 선발로 출격한 황동하가 3.2이닝 5실점에 그치며 이의리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다. 김사윤이 2.1이닝 무실점, 유승철이 2이닝 1실점으로 마운드를 지켰으나 끝내 역전에는 실패했다.

28일 6차전에서 KIA는 타선의 힘을 앞세워 재역전승에 성공하며 체면을 세웠다. KIA는 4회까지 타선에서 5점을 뽑으며 크로우에 확실한 지원을 했지만 주 2회 등판에 어려움을 겪었다. 크로우는 5-2로 앞선 5회말 문성주에 적시타, 김범석에 싹쓸이 2루타를 맞으며 5-6 역전을 허용했다.

이준영이 크로우의 승계 주자를 막지 못하며 5-7이 됐지만 KIA는 경기 후반 다시 힘을 냈다. 7회초 김도영의 번트 안타에 포수 박동원의 송구 실책이 겹치며 한 점을 만회했고, 최형우의 땅볼로 동점에 성공했다.

이어 이우성의 적시타로 8-7 역전에 성공한 뒤 8회초 김호령의 적시타와 9회초 박찬호의 땅볼에 2루수 신민재의 송구 실책이 겹치며 각각 한 점씩을 추가해 10-7 승리로 3연전을 마무리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광주 강등권·전남 플레이오프권 밖 밀려나며 '아쉬움'

광주, 수원에 1-2 역전패... 12위
전남은 안양에 1-2 석패... 6위로

올해 우승 트로피와 1부리그 승격으로 각각의 목표를 갖고 새 시즌을 출발했던 광주FC와 전남드래곤즈가 나란히 아쉬움 속에 4월을 마무리했다. 광주는 6연패 늪에 빠지며 최하위로 추락해 강등 위기에 빠졌고, 전남은 안양에 고배를 마시며 플레이오프권(5위 이내)에서 벗어난 6위로 떨어졌다.

광주FC는 지난 27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수원FC와 하나은행 K리그 1 2024 9라운드 홈경기에서 1-2로 역전패했다. 이날 패배로 광주는 올 시즌 2승 6패(승점 6)에 그치며 최하위인 12위까지 내려앉았다.

골대 불운이 치명적이었다. 광주는 세 차례 슈팅이 골대를 강타하며 득점이 무산된 반면 수원은 골대를 맞은 공이 오히려 골라인을 통과하며 득점으로 연결됐다. 운마저 따르지 않는 모습이었다.

광주는 전반 15분 김한길의 슈팅이 골포스트를 강타했으나 전반 43분 두현석이 하프라인 아래에서 길게 투입한 공을 문민서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0으로 앞서갔다.

하지만 3분 뒤인 후반 추가시간 1분 이용의 크로스가 포포비치 머리에 맞고 뒤로 흐른 뒤 정승원이 감아 찬 공이 골포스트에 맞고도 안쪽으로 떨어지며 1-1 동점이 됐다.

광주는 후반 27분 가브리엘의 슈팅이 안준수 골키퍼의 발에 맞은 뒤 골포스트



광주FC 선수단이 지난 27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수원FC전에서 1-2로 역전패한 뒤 허탈해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를 때리고 나왔고, 후반 32분에는 정지용의 슈팅이 이용에 맞고 굴절됐지만 또 골포스트를 때렸다.

이어 후반 추가시간 5분 상대의 역습 상황에서 이승우가 패스 시도가 끊겼음에도 다시 소유권을 찾아 전방으로 투입한 공을 김태한이 때렸고, 김경민 골키퍼를 맞고도 골라인을 통과하며 끝내 1-2로 패배했다.

전남드래곤즈는 28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FC안양과 하나은행 K리그 2 2024 9라운드 홈경기에서 1-2로 패했다. 올 시즌 안방 무패가 중단된 전남은 3승 2무 3패(승점 11·득점 10)로 서울이랜드 FC(득점 15)에 다득점에서 뒤진 6위로 떨어졌다.

전남은 전반 14분 선제 실점했으나 후반 12분 김종민의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체력적인 부담 속에 후반 32분 마테우스의 전진 패스를 받은 야고에게 실점을 허용해 1-2로 패배했다.

한규빈 기자

'친선·화합 축제'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료

광주 야구·줄넘기 종합 3위
전남 배구 종목 종합우승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친선·화합 축제인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에서 광주·전남 생활체육회 동호인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는 한편 지역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25~28일 울산 일원에서 41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 이번 대축전에는 전국 17개 시도 생활체육 동호인과 임원, 자원봉사자, 시민 등 6만여 명이 참가해 우정과 화합을 다졌다.

광주에서는 570명(선수 472명·임원 및 지도자 98명)이 검도 등 29개 종목에 참가했다.

광주선수단은 야구와 줄넘기 종목에서 종합 3위에 입상했다. 태권도 여자15세이하 라이트웰터급의 차현채와 스쿼시여 일부 개인전의 성은미, 스쿼시 일반부 혼합복식의 김승주·조은아, 합기도 여자12세이하부 호신술경기의 이시흔은 금메달을 따냈다.

광주선수단은 26일 개회식에서 8번째로 입상하며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등의 홍보를 펼쳤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선수단이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축제에 남녀노소 세대를 넘어 함께 즐기고 무사히 경기를 마치게 되어 기쁘다"며 "시민 누구나 운동을 즐기는 스포츠 건강도시 광주의 생활



송진호 회장 등 전남도체육회 임직원과 전남 육상선수단이 28일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열린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폐회식에서 대회 페넌트기를 전달받은 후 내년 대회 성공 개최를 다짐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체육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게이트볼 등 33개 종목에 928명(선수 835명·임원 및 지도자 93명)의 선수단이 출전한 전남 선수단은 개회식에서 1번째로 입상하며 '2024-2026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과 5월 개최되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전남 개최' 등을 적극 홍보했다.

전남 선수단은 또 다양한 종목, 다양한 연령층에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했다.

배구 종목에서 남자일반부 금메달과 여자일반부 동메달 획득으로 종목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육상에서는 금메달 6개 등 14개의 메달을, 그라운드골프(75세 이상, 74세 이하)에서 금메달 2개, 당구

(75세 이상)에서 금메달 등 포함 총 16개 종목에서 금 14, 은 12, 동 13개를 획득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특히 육상종목 포환던지기에서 나란히 출전한 김성봉(76)-오이순(69)씨 부부는 각각 은메달과 금메달을 획득했고, 김성봉씨는 높이뛰기에서 금메달을 추가했다.

전남도체육회 이사인 오광덕(60)씨도 만59세 이하부 포환던지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지난해에 이어 2연패를 차지했다.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지인 전남도와 전남도체육회는 28일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 열린 폐막식에서 각각 대회기와 페넌트기를 전달받았다.

최동환 기자